



# 2016 「박종근 박사 문고」 학술논문 공모전

- **공모 주제 :**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자유 주제
- **공모 분야 :** 학문 전 분야
- **응모 자격**
  -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 ※ 휴학생/수료후연구생 응모 가능 (졸업생 제외)
  - 개인 및 공동 연구 가능 (공동 연구는 3인 이내)
  - 모든 응모자는 공모 접수일 기준, 응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접수 기간**
  - 2016년 7월 6일(수) ~ 11월 30일(수)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논문 파일을 libplan@library.pusan.ac.kr로 전송
  -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공지사항의 '논문 공모 신청서' 및 '논문 작성 요령' 참고
  - ※ 응모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귀속

### • 시상내역

구분	편수	상금	비고
대상	1	300만원	부산대학교총장 상장
최우수상	1	200만원	부산대학교총장 상장
우수상	2	100만원	부산대학교총장 상장

- ※ 「박종근 박사 문고」 자료(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소재)를 활용한 논문에 대해 가산점 부여
-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응모 논문이 없는 경우 시상내역 변경 가능
- ※ 학술대회(당선 논문 발표회) 개최 예정 (2017년 1월)
- ※ 심사결과는 추후 공지

### • 문의처

·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 남기홍 (051-510-1309)

#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 COVER STORY

도서관이 70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개교70주년을 기념으로  
"70년의 기억찾기"라는 주제의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 2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효원in도서관> 제37호에 실린 사진은 사진공모전의 우수작 20점 중 일부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곳곳을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표지 | 오래된 향기 황세봉(사학과, 11)



우리의 봄 정지윤(무역학부, 14)



여전히... 김구원(한의학전문대학원, 15)



학교안 미래내 한국 정순비(정밀가공시스템전공, 15)



창성하라, 부산대 정새남(역사교육과, 12)



양산에 가을이 오면 송지훈(한의학과, 14)



역사,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인문관 이영근(중어중문학과, 09)



상대의 새로운 중심 주은혜(국제학부, 12)

## CONTENTS

- 04 국내외 이색도서관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08 도서관과 문학 세계 3대 문학상 파헤치기 - 노벨문학상
- 10 교수의 서재 전달되지 못한 증정보
- 12 아름다운 인터뷰 도서관 학습연구지원서비스의 중심, 이용교육!
- 14 도서관 핫이슈 미리보는 2016 하반기 도서관 캘린더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그대 어디로 떠나고 싶은가
- 18 즐기는 책세상 책으로 만나는 그림의 세계
- 20 문화공감 보는 것만으로도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영화 특집  
도서관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상금 발행일 2016. 9. 28.  
편집 김미선, 박지영, 손성동,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평범함을 거부하는 도서관, 그 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제 도서관도 개성시대다.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던 정숙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도서관은 더 이상 없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숲속 도서관,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식 도서관, 기차역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도서관 등 도서관의 특색있는 외관을 뽐내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만화 도서관, SF 도서관, 추리문학도서관, 음악도서관 등 한가지 주제의 자료들만 모아 놓은 특성화 도서관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호원in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주제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외 다양한 이색도서관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가족 혹은 연인, 친구와 함께 이런 이색도서관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LIBRARY

### 네이버 도서관 NAVER LIBRARY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6 NAVER 그린팩토리  
**이용시간** 월~금 09:00~21:00, 토/일 10:00~17:00 (매월 2,4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 휴관)  
**대표자료** 디자인 장서 17,000여권, 전세계 전문 백과사전 1,300여권, IT 장서 7,000여권 등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navercorp.com>

네이버도서관은 국내에서 이색도서관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도서관이다. 네이버 사옥의 로비에 자리잡고 있는 이 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서점, 북카페 등 책이 있는 공간의 장점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건물의 로비에는 미술작품이나 회사의 대표적인 서비스 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책이 있는 공간인 도서관을 만들어 지식과 정보, 이야기와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공통점을 통해 홍보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도서관은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의 매거진 공간과 디자인 공간, 2층의 백과사전/IT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각 공간에는 국내외 잡지 250여종과 함께 건축, 일러스트, 그래픽, 산업디자인 등의 디자인 장서 17,000여권, 『두

산세계대백과사전』, 『DK대백과』 등의 전세계의 전문 백과사전 1,300여권과 인터넷, 프로그래밍, DB 등의 IT서적 7,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로 디자인 장서 17,000여권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 개인이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고가의 희귀 장서나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가치가 있는 책들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정숙'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도서관과 다르게 공간에 따라 북적거리거나 옆사람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모든 자료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 출입증을 소지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 스캔은 불가능하나, 2층 백과사전/IT 공간에 있는 흑백/컬러 복사기를 통해 충전용 T-money 카드로 복사는 가능하다.

디자인 공간은 자칫 심심하거나 지루해보일 수 있는 서가를 숲(Forest)을 거니다는 컨셉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좀더 친숙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자료열람만이 가능한 특성을 살려, 네이버 도서관의 자료성격에 적합한 북카드를 직접 제작하여 무거운 디자인 책을 골라 자리로 옮길 때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카트의 보면에 올려놓고 내용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고, 아래쪽 수납공간에는 몇 권의 책을 넣어 손쉽게 이동할 수도 있다.

네이버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볼 수 있다. 네이버도서관은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도서관을 일구어나가고 있는데, 도서관의 자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리된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년층으로 구성된 '살버 선생님'들은 책의 분류작업과 정리를 도와 도서관 운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도서관 내에 위치한 카페에는 발달장애인의 일터를 만드는 회사 '베어베터'와 함께 지적 장애나 자폐를 가진 청년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도서관 내에 비치된 '도서신청함'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네이버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제인 매거진이나 디자인, 백과사전, IT 분야의 책만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소규모로 출판되어 시장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도서들도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1층 디자인 공간 내 전용서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층에는 '장벽없는 웹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웹 접근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나 손 운동장애, 중증운동장애 등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웹환경을 체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웹을 이용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장애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다. 네이버 도서관은 실내 인테리어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 카페의 쉼터, 네이버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라인스토어 등 흥미롭고 세련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책 읽는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고, 새로운 독서경험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네이버도서관의 공간은 세계 3대 디자인 대회인 Reddot, IDEA, IF Award를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Reddot의 베스트오브더베스트(Best of the Best)는 출품작 중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상에 해당하여 더욱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 사진 및 내용 출처

네이버도서관 공식 홈페이지(<http://library.navercorp.com>)  
직접촬영(기사작성자 최민영)

## 글로벳 도서관 GLOBEOT LIBRARY

**위치**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6층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용시간** 알-목 09:00~18:00 (금, 토, 법정공휴일 휴관)  
**대표자료** 17개국 원서 6,592권, 신문 4종 및 잡지 7종  
**도서관 홈페이지** <http://multiculturelib.gimhae.go.kr>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인 김해에 설립된 도서관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외국 도서를 접할 수 있게 설립된 다문화도서관이다. 김해시는 등록외국인 1만 8000여명으로 경남 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식 변화와 외국인 정보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김해 글로벳도서관(구, 다문화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매년 3,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10개국 언어의 다양한 원서와 함께 아동을 위한 동화, 각종 DVD와 CD가 비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좋은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과 신문·잡지열람, 50개 위성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휴게실이 있어 외국인들이 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위성채널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178㎡의 면적으로 설립된 이 도서관은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임신과 육아정보에서부터 한국어 학습, 지역사회 탐방, 김해역사 바로알기 등 문화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글을 통해 벗이 되는 도서관’과 ‘글로벌 시대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로벳도서관은 다문화의식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인 <도서관이 간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과 언어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이해교육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 각국의 문화소개 및 만들기 체험을, 그리고 언어교육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일본어/중국어를 내용으로 진행한다. 그 외에도 ‘사람책’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와 생각을 소박하게 들려주는 프로그램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7시 책 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벳도서관의 도서는 나라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책등라벨의 색깔을 달리 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도서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도서가 1,100여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보기 어려운 도서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때로는 동료 결혼이주여성들과 공감 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벳도서관에서는 ‘나도 꽃!’이라는 문학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문학수업과 시낭독회로 진행되며 동아리 회원이 매주 모여 시를 공부하고 문학의 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국적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동아리 참가자들은 시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낯선 타국에서 문화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소통 역시 한결 편해졌다고 얘기한다. 최근에는 가야대학교 글로벌 브릿지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언어영재프로그램 참여 다문화 학생들에게 부·모케어 도서 보급을 지원하고, 도서관 견학 방문학습지원, 기관의 독서 관련 행사 참여 협력, 도서대여 및 도서보급 확대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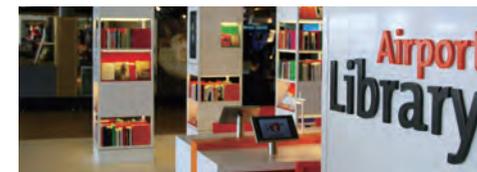
### 사진 및 내용 출처

글로벳도서관 공식 홈페이지(<http://multiculturelib.gimhae.go.kr/>)  
경상남도 인터넷방송 경남이야기(<http://tv.gyeongnam.go.kr/main/main.action>)

## 스키폴 공항 도서관 AIRPORT SCHIPHOL LIBRARY

**위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Amsterdam Airport Schiphol) 내 (Luchthaven Schiphol Evert v/d Beekstraat 202 1118 CP Schiphol, Nederland)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개방  
**대표자료** 29개 언어로 번역된 1,200권 이상의 도서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airportlibrary.nl/en/home>(영문버전)

세계 최초의 공항 도서관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내에 위치한 도서관이다. 항공간 연결편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스키폴 공항은 터미널 간 도보 이동거리가 긴 편이라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인 중앙홀의 홀랜드 볼라바드(Holland Boulevard)라는 휴식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다른 나라나 도시로 이동하는 승객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대기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 공간에는 네덜란드의 각종 서비스 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 외에도 각종 레스토랑이나 라운지, 카지노, 박물관까지 모여 있다.



스키폴 공항 도서관은 90㎡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개 언어로 번역된 1,25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으로 2010년에 설립된 이 도서관은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정확한 방문자의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3년 만에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공항도서관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아이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열람대 4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도서 열람대가 있고, 별도의 좌석 14개가 있어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된 리모델링을 통해 좀더 편안한 열람 환경과 접근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였다.

공항 도서관에서는 네덜란드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반영한 사진책과 함께 관련 동영상도 함께 볼 수 있고, 네덜란드 음악가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책을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닌, 보고 들을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인 셈이다. 또한 공항 도서관은 네덜란드식 건축과 시각 예술, 패션과 디자인 등의 특별함을 맛볼 수 있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행객들은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네덜란드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공항 중앙홀의 홀랜드 볼라바드(Holland Boulevard)의 다양한 시설 중에서 공항도서관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패드의 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12만 8천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음악을 듣고 암스테르담의 건축, 예술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패드의 디지털 방문록(Digital Guestbook)을 통해 살펴본 이용자들의 반응은 거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진 및 내용 출처

스키폴 공항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http://www.airportlibrary.nl/en/>)

## 세계 3대 문학상 파헤치기

두번째 이야기

# 노벨 문학상



| 노벨문학상 전면 |



| 노벨문학상 후면 |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 세계 3대 문학상은 몰라도 이 상만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 바로 노벨문학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3대 문학상 파헤치기> 제2탄으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노벨문학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901년 노벨상 제정과 함께 시작된 노벨문학상 시상 은 올해로 109회째를 맞고 있다. 노벨문학상은 노벨상 6개 분야(물리,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경제)의 한 분야로 노벨상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노벨상의 역사가 곧 노벨문학상의 역사이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발명가이자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이 기부한 유산 3,100만 크로나(현재 가치로 약 1조 5600억 원)를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이 설립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초기에는 물리,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나 1969년부터는 새로 경제학상이 추가되었고, 이것은 노벨기금과는 별도로 1968년 스웨덴국립은행의 창립 3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것으로 수상자는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서 선출한다.

수상자 선정은 매년 10월 노벨상 발표를 전후해 분야별로 해당 분야 노벨상 수상자 또는 저명 학자 약 1,000명씩 총 6,000여명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후 다음해 1월까지 추천을 받아 2월부터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각 노벨 위원회는 9~10월초 사이에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와 분야별 노벨상 수여 기관에 추천장을 제출하는데 대개는 위원회의 추천대로 수상자가 결정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최종 심사 및 표결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11월 15일까지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노벨상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는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죽은 사람은 수상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생전에 수상자로 지명된 경우에는 사후에도 상을 받을 수 있다.

수상식은 매년 12월 10일(노벨 사망일) 스톡홀름에서 거행되는데, 소개사는 수상자의 모국어로, 추천사는 스웨덴어로 하며, 보통 스웨덴 국왕이 참석하여 시상하도록 되어 있다. 단, 평화상은 같은 날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시상한다. 그리고 노벨상의 상금은 노벨재단이 1년간 운용한 기금의 이자 수입 중 67.5%를 시상 분야별로 5등분한다. 상금 액수는 해마다 조금씩 변하지만 약 1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많은 상금으로 인해 사실 노벨상의 권위는 상금 액수에 힘입은 바 크다는 지적도 있다.

## N o b e l p r i z e f o r l i t e r a t u r e

### | 역대 수상 현황 |

구분	수상 현황	수상자	단독수상	2인 공동수상	3인 공동수상
문학	108	112	104	4	-
물리학	109	201	47	32	30
화학	107	172	63	22	22
생리/의학	106	210	38	31	37
평화	96	129	65	29	2
경제학	47	76	24	17	6
계	573	900	341	135	97

### | 역대 노벨상 미 발표 연도 |

구분	미 발표 연도
문학	1914, 1918, 1935, 1940, 1941, 1942, 1943
물리학	1916, 1931, 1934, 1940, 1941, 1942
화학	1916, 1917, 1919, 1924, 1933, 1940, 1941, 1942
생리/의학	1915, 1916, 1917, 1918, 1921, 1925, 1940, 1941, 1942
평화	1914, 1915, 1916, 1918, 1923, 1924, 1928, 1932, 1939, 1940, 1941, 1942, 1943, 1948, 1955, 1956, 1966, 1967, 1972
경제학	-

### 노벨문학상(The Nobel Prize in Literature)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노벨문학상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게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하라”는 노벨의 유언이 곧 선정 기준이 되어 1901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의 작가 중 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은 작품이 아닌 작가의 문학 세계와 작가가 쓴 작품 전체를 보고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작품에 수여하는 맨 부커 상, 공쿠르 상과는 차이가 있다.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서점과 출판가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많은 책을 판매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인 것이다. 또한 문학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번역의 오류라 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은 문학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행위(Literacy)를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오도어 모젠(1902년)과 같은 역사가와 루돌프 오이켄(1908년), 앙리 베르그송(1927년), 버트런드 러셀(1950년) 같은 철학자, 그리고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1953년)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노벨문학상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으로 나이, 성별,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문학적 특성과 함께 작가의 평생에 걸친 문학적 유산을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노벨상에 비해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여성 수상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 의학상과 화학상은 58세, 평화상은 61세인데 비해 노벨 문학상은 65세이다. 그리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 중 여성 수상자는 46명이며 이중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은 13명(약 28%)에 이른다.

그리고 역대 수상자의 작품을 언어별로 살펴보면 영어 27회, 프랑스어 14회, 독일어 13회, 스페인어 11회, 스웨덴어 7회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용 인구가 많고 주류 문예사조를 이끌어온 프랑스, 독일 문학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언어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타고르(인도·1913), 가와바타 야스나리(일본·1968), 오에 겐자부로(일본·1994), 가오싱젠(프랑스 망명 중국인·2000), 모옌(중국·2012) 등 다섯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2014년 말 기준)

이와 같이 노벨문학상은 폭넓은 선정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존하는 작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위원회에서는 1974년 사후 수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이것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인해 톨스토이, 에밀 졸라, 체호프, 마크 트웨인 등 역사적인 거장들이 후보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1958년 수상자로 선정된 『닥터 지바고』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구, 소련)는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련 작가연맹의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반면 1964년 장 폴 사르트르(프랑스)는 작가의 독립성 침해와 문학의 제도권 편입 반대 등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하였다. 그는 “작가는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수단인 글을 통해서만 행동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제도에 편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설파하며 자신이 제안받은 교직이나 훈장 등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끝으로 노벨문학상은 원칙적으로 후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50년이 지나면 후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그것은 전문가나 도박사,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개인 의견일 뿐이다. 노벨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노벨위원회에서는 1901년부터 1965년까지만 분야별 후보자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노벨상 후보자 검색 <http://www.nobelprize.org/nomination/archive/list.php>  
**참고사이트**  
 노벨상 공식사이트(<http://www.nobelprize.org/>)  
 독서신문: 책과 삶 (<http://www.bookand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  
 블로그(<http://blog.naver.com/lenainst>)



박병현 사회복지학과

# 전달되지 못한 증정본

50년 전 나 때문에 책을 받지 못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그 여자아이가 생각났다. 얼마 전부터 나는 책을 출간할 때마다 그 때 책을 받지 못한 그 여자아이에게 줄 책을 한권씩 마련해 정성껏 서명을 해서 내 연구실 책장에 보관한다.

새로운 책을 출간하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책 첫 페이지에 서명을 해서 증정하는 관습이 있다. 나의 경우에도 새로운 책을 출간하면 부모님, 은사님, 동료교수들, 비판적인 코멘트로 내용이 풍부한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대학원생들에게 서명을 해서 증정하곤 한다. 책을 쓰는 기간 동안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어졌지만 많은 지지를 보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연구실 책장 한 칸에는 정성껏 서명을 했지만 증정하지 못한 책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다. 왜 그 책들은 전달되지 못하고 연구실 책장에 있을까?

나에게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어린 시절의 우울한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나 196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새 책을 무상으로 받았다. 새 책을 받을 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슴이 설레었고, 새 책을 받은 날이면 어머니께서 새 책이 헤질까봐 지나간 달력으로 책거품을 해주시곤 했다. 새 책을 받는 날이었다. 선생님께선 새 책을 과목별로 교탁 위에 진열해 두시곤 출석부를 보시며 한 명씩 이름을 부르시곤 과목별로 한 권씩 가져가도록 했다. 내 이름이 불리자 나도 과목별로 한 권씩 가져왔다.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한 권씩 가져갔다. 그런데 어느 한 과목 책이 한 권 모자랐다. 선생님께선 혹시 두 권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한 권은 반납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지난해 달력을 한 장씩 찢어 새로 받은 모든 책에 책거품을

을 해주시던 중 “이 책은 두 권이네!” 하셨다. 나는 그때야 내가 어느 과목의 책을 두 권 가져 온 것을 알았다. 나는 당연히 한 권씩만 가져온 것으로 생각했고, 두 권 가져간 사람은 한 권을 반납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새 책을 받은 설레임으로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선생님께서는 혹시 책을 두 권 가지고 간 사람은 한 권을 반납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반납하지 못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선생님께서는 두 권 가지고 간 사람은 한 권을 반납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끝내 여분의 한 권을 선생님께 돌려드리지 못했다. 웬지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았고, 아니 어쩌면 친구들로부터 ‘두 권 가져간 사람이너구나!’라는 핀잔을 받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결국 어느 한 여학생은 책을 갖지 못했다. 지금 같으면 여분의 책이 많으려면 모든 것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선생님께서도 여분의 한 권을 구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나는 새 책을 갖지 못해 눈에 눈물이 맺혔던 그 여자아이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여자아이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았다. 항상 혼자 외톨이로 지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여자아이는 ‘왕따’였었던 것 같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해 손바닥에 매를 맞는 일이 많았다. 손바닥에 매를 맞고 몸을 움츠리던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마음은 타 들어갔다. 집에 와서 책꽂이에 새 책 그대로 꽂혀있는 그 책을 볼 때면 “책을 돌려줘야 하는데... 책을 돌려줘야 하는데...” 하면서도 책을 돌려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웠다.

그 때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하는 세월 동안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나는 교수가 된 이후 내가 전공하는 사회복지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책을 한권씩 출간하기 시작했다. 내가 출간한 책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베스트셀러 언저리에 위치한 책도 있고, 외국의 유명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한 책도 있다. 몇 년 전엔 내 책을 너무 자세하게 해부한 어느 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던 적도 있다. 책을 한 권씩 출간할 때마다 50년 전 나 때문에 책을 받지 못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그 여자아이가 생각났다. 지금쯤 살아있다면 예순 전후의 나이가 되었을 그 여자아이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해 힘든 삶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얼마 전부터 나는 책을 출간할 때마다 그 때 책을 받지 못한 그 여자아이에게 줄 책을 한권씩 마련해 정성껏 서명을 해서 내 연구실 책장에 보관한다. 언젠가 불현 듯 50년 전 나 때문에 책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면 그때 정말 미안했었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물론 나의 즐거는 그때의 책과는 소중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정성껏 서명한 책을 주면서 그때 나 때문에 받지 못한 책으로 대신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두 권을 가져왔던 그 책은 사회과목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지금 ‘사회’를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할까?

# 도서관 학습연구지원서비스의 중심, 이용교육!

교육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도서관은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교재부터 연구에 필요한 논문까지 다양한 종류의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 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학부 신입생은 반드시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을 처음 경험하는 신입생들에게 학술정보탐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매학기 마다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교육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그룹별(5인 이상)로 원하는 시간에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교육은 교육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고, 전공이나 논문주제에 초점을 맞춰 학술정보 검색법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논문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에게 적합한 교육입니다. 또한, 교수님 수업시간에 학술정보검색법, 참고문헌관리도구(EndNote, RefWorks) 활용법을 내용으로 강의실로 찾아가서 맞춤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서관 이용교육은 어땠을까요? 교육을 실제로 들었던 학생들(김재영\_문헌정보학과, 전흥빈\_바이오산업기체공학과)과 수업시간에 맞춤교육을 신청하셨던 교수님(김건형\_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도서관 이용교육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들으셨나요? 교육을 신청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재영**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교육을 듣고 나서 우리 학교 도서관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흥빈** 열람실 이용 외에 도서관 행사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었으며, 도서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홍보자료를 보고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1:1 맞춤형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김건형**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정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한의사들은 더 이상 한의학 고전이나 경험만을 임상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현대의 과학기술 방법론을 적용한 관련 연구결과물 역시 폭넓게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술DB에 색인된 논문 검색 및 도서관 활용법이 한의전 학생들의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도서관 이용교육을 듣고 나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김재영** 도서관에서 단순히 책 대출 반납만 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때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입생에게는 고등학교 도서관에 비해 낯설고 큰 규모의 대학도서관의 이용법이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인 대출과 반납 방법을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지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흥빈** 제가 생각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가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법인 대출 반납, 캠퍼스간 자료대출, 예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양캠퍼스라는 지역적 특성상 문화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 관람이 가능한 DVD 시청코너를 포함한 도서관 공간과 서비스는 지식향양과 문화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전공교재를 활용하여 과제를 작성함으로써 심화된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건형** 수업 때, 현대적 한의학 연구결과물을 가능한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뒷목 통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주제에서는 전공 교과서에 실린 한의학 진단/치료 방법 외에도 '목통증의 침 치료'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나 높은 품질의 임상시험 결과 논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한의전 학생들은 3-4학년 때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데, 그 때 환자들에 대해 교과서나 전통 한의학 서적 외에도 현대적 연구를 통해 파악한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 안전성 증거를 함께 고려하도록 훈련합니다. 논문검색 방법을 잘 익

힌다면 이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술정보검색 전문가인 사서 선생님께서 직접 교육해 주셔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배정된 시간이 짧아 기본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기에, 향후 보건의료정보 검색에 관한 보다 심화된 실습을 강화시킨 워크숍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재영** 제2도서관 열람실의 경우, 열람실 밖 복도는 다소 시끄럽고 어수선했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의 도서관 열람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독서프로그램 외에도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20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홍보도 힘써주셔서 여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학우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도서관 이용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흥빈** 도서관을 이용하며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적인 부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김건형**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 논문검색이나 자료 수집에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교수진, 전공의, 학생들도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서관에 더욱 많은 지원과 자원 확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리보는 2016 하반기 도서관 캘린더

## 내맘에 드는 책 골라읽기! 2016 도서관 기획전시회

**내용** | 2달에 한번씩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도서 30-50종을 전시  
**일정** | 2016년 7월 ~ 2017년 2월  
**장소** | 제1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도서관에서는 제1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여 7월부터 새로운 기획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 및 콘텐츠를 활용한 소규모 기획전시회를 통해 도서관 및 도서관 자료에 대한 홍보효과를 강화하고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현재는 7월부터 진행한 “나를 깨발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방학동안 스스로를 발전시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인기있는 자기계발서를 전시중이다. 다가오는 9월부터 2달간은 “세계문학상 수상작품의 원서와 번역본을 함께 만나!”라는 주제로, 세계 3대 문학상의 수상작품을 전시한다. 얼마 전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3대 문학상이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이에 발맞추어 도서관에서는 2000년 이후의 각 문학상의 수상작품들을 원서와 번역본을 함께 전시하여 원서는 물론 번역의 중요성과 진가를 알게 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시일정	전시회명	전시주제 및 내용
16년 9월	세계문학상 수상작품의 원서와 번역본을 함께 만나!	세계 3대 문학상의 수상작품 : 원서와 번역본
16년 11월	솔로대첩 : 혼자놀기의 진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
17년 1월	여행, 지금 당장 떠나라!	가볼만한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는 도서

도서관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는 2016년 9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진행하던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의 세부사업인 <책 읽는 대학>의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제1도서관 1층에서는 2달에 한번씩 새로운 주제로 기획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내 교수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세상의 모든 시학>과 한문학과 BK21+ 사업단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통 지식강좌>와 <책과 번역 기획강좌> 역시 2학기 때 계속된다. 상반기보다 더 숨가쁘게 달려야하는 2학기의 도서관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 깊어가는 가을밤,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독서캠프

**내용** | 도서관에서의 무박2일 독서캠프와 배경이 된 곳으로 떠나는 1박 2일 문학기행  
**일정** | 2016년 11월 중  
**장소** | 나노생명과학도서관(밀양캠퍼스), 문학기행은 장소미정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의 하나인 <책 읽는 대학>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의 무박2일 독서캠프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로 떠나는 1박2일 문학기행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독서캠프를 통해 책읽기와 글쓰기를 매개로 한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세부행사 진행을 통해 독서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무박2일로 진행되는 독서캠프는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내에서 진행되며, 도서관 내 밤샘책읽기를 통해 도서관이라는 공간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독서토론과 글쓰기 등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박2일로 구성된 문학기행은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책 속 배경이 된 지역을 답사하고, 책 속 인물과 배경을 직접 체험하면서 글짓기 테라피, 강연 등의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무박2일은 9월 30일(금)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1박2일 문학기행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중으로 계획 중이다.



##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독후감 공모전

**내용** | 선정된 독서를 배포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함  
**일정** | 2016년 9월 ~ 12월

도서관에서는 대학생의 생각하는 힘과 정서의 함양을 증진하는 독후감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2015년의 독후감공모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행사로,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책을 읽은 후 글로 써보는 돌아보기 과정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학생의 독서경력을 통해 취업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후감 공모전은 대상독서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후 독후감을 받고, 우수독후감을 선정하여 상금과 총장상장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015년의 독후감공모전은 “효원인과 함께하는 독서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총 152명의 학부생이 참여하였으며 8명의 학생들이 우수독후감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상금과 총장상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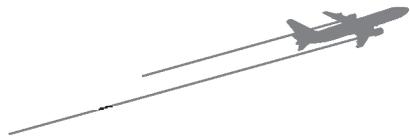
## 2학기에도 계속된다, 다양한 학술강좌

**내용** | 전통지식 역량강화 및 인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술강좌 운영  
**일정** | 한강좌당 매달 1회씩 진행(학기중)  
**장소** | 제2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

도서관에서는 교내 교수진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세상의 모든 시학”과 한문학과BK21+사업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전통지식강좌”, “책과 번역 강좌”를 개설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이 들을 수 있는 오픈강좌로, 다양한 학술강좌 개설을 통해 전통지식의 역량강화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진행되던 강좌나 행사 등이 도서관이나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학술강좌들은 이용자의 관심사 및 대상(학부 및 대학원)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10회의 학술강좌를 통해 342명의 참가자가 학술강좌를 수강하였고, 높은 만족도와 함께 이후에 진행될 강좌에도 계속적으로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세상의 모든 시학	전통지식강좌	책과 번역 강좌
9월 23일(금) 중앙아시아 구비서사시 마나스	9월 1일(목) 문명의 충돌?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인식	9월 8일(목) 추자평전
10월 28일(금) 시는 감동+이다	10월 6일(목) 나노기술이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	10월 13일(목) 이탁오평전
11월 28일(금) 소리의 절주와 조화, 시를 읽는 열쇠	11월 3일(목) 조선과 천주교의 만남	11월 10일(목) 강희제평전
12월(예정) 시인특강	12월 1일(목) 한국 최고 음식 김치 · 된장 으로 풀이한 건강양생법	12월 8일(목) 주은래와 등영초

# 그대 어디로 떠나고 싶은가?



최근 5년간  
여행서 대출통계로  
알아보는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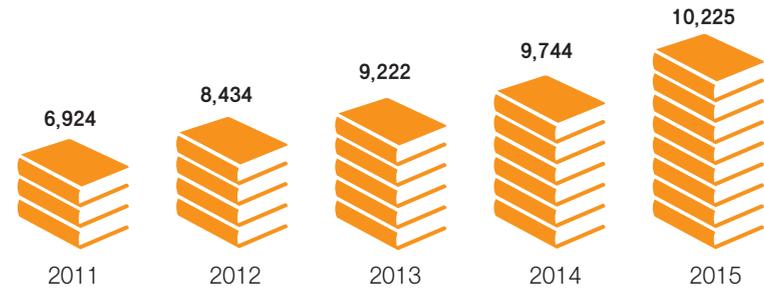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외 여행 경험과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국내 여행 횟수는 50%, 해외 여행을 경험한 횟수도 연간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서점가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된 해외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여행가이드북도 판매가 늘고 있다"며 "국내 여행 또한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주말을 이용해 국내를 여행하려는 수요를 겨냥해 출간된 국내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거나, 다양한 테마의 국내 여행서적도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부산대학교도서관 대출통계를 살펴 본 결과, 여행서 분야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대출권수가 증가하며 2011년 6,924권에서 2015년 10,225권으로 약 47.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대학교도서관 여행서 대출현황 (2011.1.~2015.12.)



## 여행서 베스트셀러로 살펴본 인기 여행지는?

누구나 한번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열망과 또다시 떠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곳. 호원인들이 꿈꾸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최근 5년간 여행서 대출통계로 살펴 본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유럽'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산대학교 여행서 대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출도서 1위는 『이지 유럽』, 2위는 『(자신만만 세계여행) 유럽』이 차지했다.

이어 3위 『Enjoy 오사카』, 4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6위 『(프렌즈 mini Japan) 후쿠오카』, 9위 『(프렌즈 mini Japan) 규슈』, 10위 『(자신만만 세계여행) 일본』이 차지하며, 일본 여행서가 10위권 내 5권이나 올랐다. 그 외 『제주 100배 즐기기』, 『답사여행의 길잡이』가 각각 5위, 7위를 기록하며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여행서 대출순위 BEST 10



이지 유럽  
최윤준 등  
트레블북스블루 | 2010



(자신만만 세계여행) 유럽  
이미지, 윤도영, 곽정란  
삼성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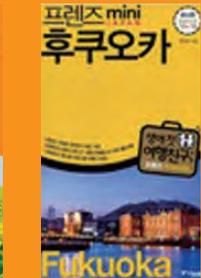
Enjoy 오사카 : 교토·고베·나라  
세계여행정보센터  
넥서스Books | 201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일본편  
유홍준  
창비 | 2013



제주 100배 즐기기  
홍연주, 홍수연  
랜덤하우스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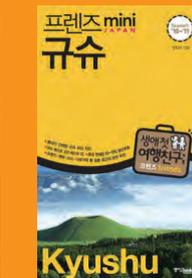
(프렌즈 mini Japan) 후쿠오카  
소문사 편집부  
중앙books | 2011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 199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박지영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9



(프렌즈 mini Japan) 규슈  
소문사 편집부  
중앙books | 2009



(자신만만 세계여행) 일본  
심정보  
삼성 | 2011

## 국내 여행서 보다는 해외 여행서가 더 인기

여행서 대출순위 100위권 내 책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여행서가 14%, 해외 여행서가 86%를 차지했다. 국내 여행서 가운데는 『대한민국 낭만기차여행』(박정배 저, 열번째행성)을 비롯하여, 『(NEW) 내일로 기차로』(권다현 저, 테라) 『청춘, 내일로』(박솔희 저, 꿈의지도) 등과 같이 '내일로 티켓' 등 간편해진 교통편으로 여행 가능한 기차여행이 인기를 끌었다.

지역별로는 전국여행뿐만 아니라 『제주 100배 즐기기』(홍연주 저, 랜덤하우스), 『제주 여행의 달인』(고선영 저, 리더스하우스)과 『부산』(정혜정 저, 리더스하우스), 『부산에 반하다』(양소희 저, 헤지원) 와 같이 제주, 부산 지역이 주목받았다.

해외 여행서 가운데는 아시아가 48%, 유럽이 36%를 차지했다. 나라별로는 10위권 내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을 비롯하여, 『오! 타이완』(양소희 저, 북웨이), 『나는 지금부터 행복해질 것이다』(이지상 저, 좋은생각사람들), 『(프렌즈) 홍콩·마카오』(진명운 저, 중앙books)와 같이 타이완, 홍콩이 인기를 얻었다. 유럽에서는 『일생에 한번은 스페인을 만나라』(최도성 저, 21세기북스), 『Enjoy 파리』(김지선 저, 넥서스Books) 등과 같이 스페인, 프랑스 지역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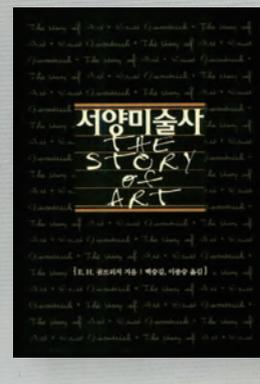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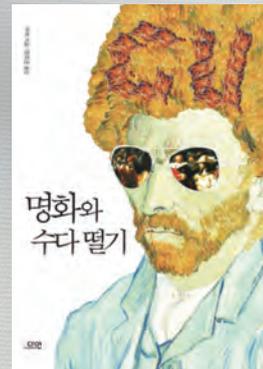
해외 여행서에 비해 국내 여행서의 대출 비율이 적은 것은 인터넷에 방대한 양의 여행 정보가 퍼진 데다 간단한 궁금증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창이던 여름 휴가철도 지나고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 가을이 다시 다가왔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다음 여행지는 어디인가? 상상만 해도 살리는 당신만의 그 곳을 꿈꾸며, 여행서 한권 펼쳐들고서 여름내 무더위에 지쳤던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 미술관에서의 감동을 그대로, 그림읽기의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주는

# 책으로 만나는 그림의 세계

미술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술품을 감상하며 마음의 치유를 얻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미술이나 조각, 음악 등의 예술 작품을 쉽게 설명하는 교양예술서적도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미술에 대해 미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부터 미술에 담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술관에서의 감동과 함께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가볍게 읽기 좋은 예술서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



### 명화와 수다 떨기

꾸에 지음 | 정호은 옮김 | 다연 | 2014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59 662s한)  
저자 꾸에가 전해주는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를 통해 예술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예술가들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전문성이나 권위와는 거리가 먼 책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예술은 고매하고 특정인들을 위한 고도의 전문적 분야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예술가들이 친숙한 이웃처럼 느끼게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비밀을 알아가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전혀 화가 같지 않은 화가 카라바조, 그림 제조 공장의 공장장 렘브란트, 강한 한 방의 신동 터너, 날씨를 제멋대로 조종하는 캔스터블, 여자의 유방을 사랑한 르누아르, 한쪽 귀의 반 고흐 등 예술에 대한 시대의 참신한 시각과 관점이 미술의 눈을 열어 삶 또한 풍요롭게 열어줄 것이다.

### 명화가 내게 묻다

최해진 지음 | 북라이프 | 2016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50.2 최94ㄱ)  
화려한 예술과 귀족의 삶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록해온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 관계, 마음 그리고 나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진솔하게 풀어낸 그림에세이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림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반 고흐, 렘브란트, 몽크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예술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울고 웃는 일상을 소중히 여겼던 네덜란드의 풍속화가 얀 스테인, 아내 이다의 뒷모습을 즐겨 그렸던 덴마크 화가 빌헬름 하메르쇠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델이자 파격적인 화풍으로 당대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여성화가 수잔 발라동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1916-1956)

이중섭 지음 | 박재삼 옮김 | 다빈치 | 2011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6 0177A2)  
이중섭의 대표 작품과 함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책이다. 소를 그린 화가로 알려진 이중섭의 예술에 대한 고뇌, 탐구,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녹아 있는 작품들과 더불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중섭이 아내 남덕과 아들 태현·태성에게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화가 이중섭이 직접 기술한 것을 고(故) 박재삼 시인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시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이중섭의 공황했던 생활상과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술에 대한 광적인 집착 등이 박재삼 특유의 언어로 애처롭게 그려져 읽는 이의 마음을 애잔하게 울린다. 단순히 '소를 그린 화가'로 기억된 이중섭의 모습이 아닌, 험난한 삶의 여정을 힘겹게 지나는 인간 이중섭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이소영 지음 | 흥익출판사 | 2016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59.973 이55ㄱ)  
75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101세까지 살면서 그림 하나로 미국인들을 매료시킨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국 최초로 만나다.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에서 저자는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모지스 할머니의 성실한 삶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준 인간 승리의 모습을 감성어린 필체로 그린다. 창 밖의 전원마을 풍경, 빨래를 하거나 양을 목욕시키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잠드는 아이들, 결혼식이나 마을 축제 행사 등 모지스 할머니가 담아낸 보통 사람들의 담백한 일상은 하나같이 온유하고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낸다. 이 책에는 40여 편의 그림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녀의 101년 삶과 함께 소개되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그림들은 그 어느 유명화가의 작품보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 시대를 훔친 미술

이진숙 지음 | 민음사 | 2015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09 0179ㄱ)  
세계사적이면서 예술사적으로 의미미한 회화 174장을 수록하여 그림으로 읽어내는 인간과 세계의 역사 '시대를 훔친 미술'. 이 책은 인간의 진실에 가까이 있는 회화를 시대와 어군별로 모아 펼쳐 놓고 인간과 세계의 문화를 관찰해 보는 교양서다. 미술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파한 미술 평론가 이진숙은 세계사의 주요한 기점들을 일군의 화가들 회화로 설명한다. 작품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세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며 작품 생성의 배경과 실제 결과물의 총체적인 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림의 탄생 배경은 물론 예술가의 철학적 세계관과 장르의 전방까지 설명함으로써 회화역사의 총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길게 이어진 인간역사의 선을 따라간다는 것을 증명한다.

### 작고 예쁜 그림 한 장

민미레터(박민경) 지음 | 큐리어스 | 2016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51.422 박39ㄱ)  
이 책은 초간단 기법 3개로 감성수채화 45가지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책으로, 점 찍기, 물 스키퍼, 물 떨어뜨리기로 작고 예쁜 감성수채화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성수채화는 그림 실력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물 번짐으로 누구나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틀에 박힌 클립아트나 흔한 장식 그림이 아니라, 감성이 살아 있는 감성수채화는 카드나 엽서, 청첩장, 캘리그래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만들기에 좋다. 또한 작가가 직접 알려주는 영상이 담겨 있어 보다 상세하고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다. 붓 한번 잡아 보지 않은 사람도, 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멋진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책이다.

### 서양미술사

E. H. 곰브리치 지음 | 백승길, 이중송 옮김 | 예경 | 2003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09 G632s한)  
미술이라는 분야에 처음 입문하여 아직은 낯설기만 한 사람들을 위해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이다. 까다롭고 복잡한 인명과 각 시대의 양식들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나중에 좀더 전문적인 책을 탐독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곰브리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문 용어나 알파한 감상의 나열이 평생동안 미술책은 모두 비슷할 것이라는 식의 편견을 심어주는 악습이 된다고 지적하며 전문 용어나 감상보다는 평이한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따라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술적인 용어의 남용을 경계하며 난해한 사상들까지 두루 담아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서양미술사의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미술사 입문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 스케치 쉽게 하기: 기초 드로잉

김충원 지음 | 진선아트북 | 2010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43.4 김817ㄱ)  
기초적인 드로잉 기법을 다룬 이 책은 이제 막 미술이나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들과 새롭게 그림 그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기초 드로잉 기법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초보자를 위한 그림 그리기의 풍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문제없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 교육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미술을 지도하며 쌓아 온 노하우를 제시한다. 사물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성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드로잉을 보여준다. 직접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실전편을 통해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따라 그리기 쉽게 밑그림을 첨부하였다.



## 보는 것만으로도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영화 특집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먹방과 쿡방이 대세입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스타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고 아무지게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요리는 영화에서도 단골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보는 내내 눈과 귀가 호강하는, 오감이 즐거워지는 맛있는 영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영화는 제1·2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메리칸 셰프

**개요** 코미디 | 114분 | 2015.1.  
**감독** 존 파브로  
**출연** 존 파브로 (칼 캐스퍼역), 엠제이안소니(피서역) 등  
**내용** 일류 레스토랑의 셰프 칼 캐스퍼가 모든 것을 잃고 아들과 함께 푸드트럭에 도전하여 미국 전역을 일주하던 중 셰프로서의 명예를 되찾는 이야기  
**한줄평** '차렷하지만 포만감있는 캐주얼 다이닝 같은 영화' (이숙영 영화 저널리스트)



### 소울키친

**개요** 코미디 | 99분 | 2009.2.  
**감독** 파티아킨  
**출연** 아담 보스도코스(지노스 역), 모리츠 블라이브트로(이탈리아스 역) 등  
**내용** 함부르크에서 레스토랑 '소울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지노스와 고집불통 천재셰프 간에 레스토랑 운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  
**한줄평** EAT PLAY LOVE (이지혜 10아시아 기자)



### 식객: 김치전쟁

**개요** 드라마 | 119분 | 2010.1.  
**감독** 백동훈, 김길형  
**출연** 김정은(장은 역), 진구(성찬 역), 왕지혜(진수 역) 등  
**내용** 대령숙수의 칼을 얻었으나 여전히 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비는 성찬이 '춘양각'을 지키기 위해 김치대회에서 세계적 셰프 배장은과 벌이는 숙명적인 대결  
**한줄평** '정성껏 차린 요리' (이화정 씨네21 기자)



### 줄리 & 줄리아

**개요** 드라마 | 122분 | 2009.12.  
**감독** 노라 에프론  
**출연** 메릴 스트립(줄리아 차일드 역), 에이미 애덤스(줄리 포웰 역) 등  
**내용** 말이 통하지 않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통해 모두를 감동시킨 전설적인 프렌치 셰프가 된 줄리아와 뉴욕의 요리 블로거 줄리의 성공스토리  
**한줄평** '행복을 전해주는 레시피' (안영윤 무비위크 기자)



###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개요** 드라마 | 111분 | 2015.2.  
**감독** 모리준이치  
**출연** 하시모토 아이(이치코 역), 마츠오카 미유(키코 역) 등  
**내용** 도시에서 생활하다 고향 코모리로 돌아온 이치코, 자급자족하며 농촌생활을 시작한다. 음식을 먹으며 음식과 얽힌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는데...  
**한줄평** '정갈하고 소박한 밥상차림' (이은선 매거진 M 기자)



### 엘리제궁의 요리사

**개요** 코미디 | 90분 | 2015.3.  
**감독** 크리스티앙 뱅상  
**출연** 캐서린 프로트(오르탕스 역), 아서 듀퐁(니콜라스 부아 역) 등  
**내용** 프랑스의 시골에서 송로버섯농장을 운영하던 라보리가 대통령의 개인 셰프를 제의받고 파리 엘리제궁의 유일한 여성 셰프가 되면서 선보이는 따뜻한 프렌치 홈쿠킹!  
**한줄평** '역경도 소화해내는 미식의 묘미' (유지나 씨네21 기자)

### 그 외 요리를 주제로 다룬 영화

장르 | 러닝타임 | 개봉년월 | 감독

#### 남극의 셰프

코미디 | 125분 | 2010.2. | 오키타 슈이치

#### 라파뚜이

애니메이션 | 115분 | 2007.7. | 브래드 버드

#### 카모메 식당

드라마 | 102분 | 2007.8. | 오기카미 나오코

#### 셰프

코미디 | 85분 | 2013.1. | 다니엘 코헨



## 도서관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도서관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용방법 및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 간결한 메뉴 구성



- 메뉴가 한눈에 보이도록 간결하게 구성
- 빠른 서비스 찾기를 통해 키워드로 원하는 메뉴에 바로 접근 가능

### 자주 찾는 메뉴와 검색 페이지를 메인에 배치



- 소장자료, 전자저널, 전자논문, 학술DB를 메인에서 바로 검색하도록 개선
- 스테디룸 신청, 교외접속 확인 등 메인에 배치하여 빠른 접근 가능

### 스테디룸 예약 및 이용교육 신청 시스템 개선



- 스테디룸과 이용교육을 쉽게 신청하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 디자인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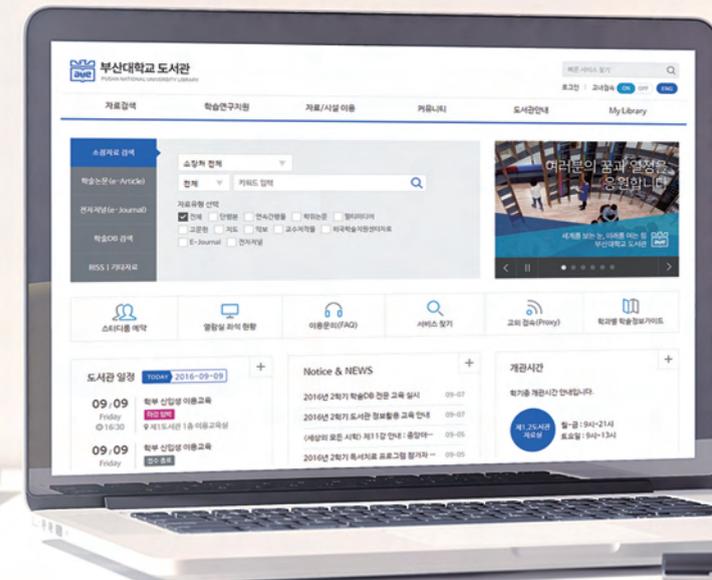


- 우리 대학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 개인정보활용동의 기능 추가



- 보안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불편하시더라도 동의 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선집중

### 2016년 상반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 50건 선정



도서관에서는 2016년 상반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를 50건 선정했다. 2016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추천서는 총 75건이며, 그중 우수추천서 50건(37명)을 선정하였다.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의 도서추천은 내 삶에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친구·선배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고자 2012년부터 지속되는 행사로, 1년에 2번씩 추천서를 받고 추천된 도서 100종을 다음해에 전시회를 통해서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에 선정된 추천도서로는 「침묵의 기술」(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저), 「표백」(장강명 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저)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가 있으며, 자료의 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 접수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상반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수추천서 50건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효원인 감동공유로 선정된 추천도서는 총 331종으로, 제1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의 북카페에서 전체목록과 함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 2015 SCI급 게재 논문보고서 출간



도서관에서는 9월 2015년 SCI급 게재 논문 보고서를 출간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SCI 서비스는 부산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SCI급 논문과 학술지 인용통계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과별로 등재/탈락 학술지를 분류하여 연구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SCI급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Web of Science,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출간된 논문보고서에는 SCI급 학술지의 인용 통계분석을 통해 약 12,696종의 통계분석을 실시하며, 대학별 논문 발표 수 및 인용 지표 분석을 통해 우리 대학 연구자의 SCI급 통계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보고서 작성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넷 워크분석프로그램인 NetMiner를 도입하여,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분석을 강화하였고 학문분야별로(22개학군) 논문 발표 수 및 인용지표분석을 타 대학과 비교 분석하였다.

도서관에서는 SCI급 게재 논문 보고서의 발간 외에도 SCI급 학술지 및 논문을 분석하여 매달 등재/탈락 학술지의 정보를 갱신하고 학과별로 학술지를 분류하여 학과 단위의 동향분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학과의 연구력 진단 및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문의 | 도서관 전산지원팀 051-510-1032

## Special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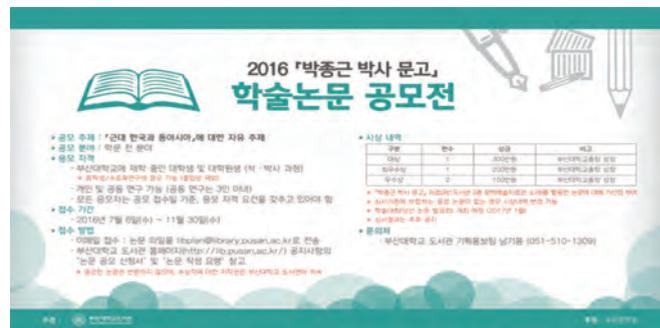
###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 목록: 스트레스 발간



지난 7월 도서관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 목록: 스트레스'를 발간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나 고민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수록한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 목록'과 함께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해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내 학부생 및 지역주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도서를 통독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하고,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몰입을 통해 치유적 글쓰기와 말하기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제작된 대학생들을 위한 주제별 독서목록은 나는 누구인가, 흔들리는 20대, 부모와의 관계, 자기존중,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에 실린 자료들은 제1도서관 3층 북카페 코너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 도서관 인문사회자료관 051-510-1863

### 2016 『박종근박사문고』 학술논문 공모전 안내



도서관에서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휴학생/수료후연구생 가능)을 대상으로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주제로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개인 및 3인 이내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내에 있는 『박종근 박사 문고』 자료를 활용한 논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2015년부터 진행한 '학술논문 공모전'은 『박종근 박사 문고』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 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상 1팀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은 2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100만원씩 수여되며, 모든 시상자들에게는 부산대학교총장 상장을 수여한다. 논문의 접수기간은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접수된 논문들은 관련 주제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들이 결정되고,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2017년 1월에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논문 공모전의 접수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 | 고현철 교수 문고 |

#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991년 비평전문지 '오늘의 문예비평'에 평론을 발표하며 평론가로서 엄격한 비평활동을 한 고(故) 고현철 교수의 저작물 및 연구실에 소장하던 자료를 유족들의 뜻에 따라 우리 도서관에서 기증받아 고현철 교수 문고를 설치하였다.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에 설치된 고현철 교수 문고는 『구체성의 비평』, 『영화읽기와 문학』, 『재현과 탈식민주의』, 『평사리송사리』, 등의 저작물과 함께 『현대문학 비평자료집(이북편)』, 『한국문학통사』, 『세계예술의 역사』 등 3,000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17일에는 고(故) 고현철 교수의 1주기 추모식과 함께 고현철 교수 문고 개소식이 열렸으며, 유가족과 함께 전호환 총장, 300여명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에는 고현철 교수의 주요저작물 및 자필원고 등이 함께 전시되었고, 문고 소개 및 감사패 증정, 유족대표의 헌화, 현판 제막식 및 문고열람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 도서관에 자료기증을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기증해주시는 책은 모두의 자산이 되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됩니다.

기증관련문의 |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7600

